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5. 2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「에르도안」,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 요구
 - 5.13 「에르도안」 터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은 기본적인 인권·국제법·모든 인류의 가치에 위반된다며, 알아크사 모스크 (이슬람 사원)와 무슬림을 겨냥한 비열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
 - * 또한,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이스라엘을 막지 못한다면, 국제체제의 균열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
- UN 등, 스위스의 새로운 테러방지법 인권 침해 우려
 - 5.17 UN을 비롯한 세계인권단체들은 스위스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이 경찰에게 광범위한 권한*을 주어 개인 및 가족 사생활과 이동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인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 표명
 - * 범죄가 의심되는 △12세 이상에 대해 현재보다 강력한 감시 허용 및 행동 제한·심문 △15세 이상은 최대 9개월 동안 가택 연금 등

미주

- 美 법원, ISIS 충성 맹세 및 테러 선동 혐의자 중형
 - 5.12 美 연방법원은 △ ISIS 충성 맹세, △ 뉴욕 지하철 등에 '외로운 늑대'형 테러 선동, △ 폭탄제조법 및 흉기난동 방법 제공 혐의로 기소된 「재커리 클락」 (42)에게 징역 20년을 선고
 - * 판사는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

- 美,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극단주의 공격 가능성 경고
 - 5.14 美 국토안보부(DHS)는 “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 코로나19 규제 완화를 틈타 대규모 표적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”며 국가테러경보시스템(NTAS)을 통해 경보(5.13~8.13)를 발령
 - * 폭력적 극단주의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포럼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부언

아 · 태평양

- 中, 중앙亞 국가들과 아프간 공동대응 모색
 - 5.13 中 외교부는 아프간에서 美軍 철수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, 아프간 주변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부장관들과 중국+중앙亞 5개국 (C+C5) 회의를 개최
 - * 「왕이」 외교부장관은 “테러 세력이 아프간內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를 바라며, 중앙亞 각국이 아프간 문제 해결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”고 강조
- 아프간, 탈레반의 휴전 기간 중 테러 비난
 - 5.16 아프간 정부는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‘이드 알 피트르’ 기간 (5.13~15) 중 휴전을 위반한 탈레반의 테러로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당했다며 탈레반을 비난
 - * 그럼에도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에 휴전 연장 또는 영구 휴전을 촉구
- 파키스탄,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평가 前 새로운 대책 발표
 - 5.17 파키스탄은 6월 예정된 ‘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’ 회의에서 ‘그레이 리스트’ 해제를 위해 △자금세탁 연관 재산 몰수 및 경매 △수사와 기소를 경찰에서 전문기관으로 이관 등 새로운 대책 발표
 - * FATF는 '21.2월 파키스탄을 27개 항목 중 3개 항목에 결함이 있어 ‘그레이 리스트’로 분류
- 금융투자협회, 금융 종사자 대상 ‘자금세탁방지제도’ 교육
 -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기관 실무자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역량 향상을 위해 △자금세탁 관련 규정 △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△자금세탁 관련 국내·외 사례 및 대응방법 등의 교육을 6.22 실시할 예정

英 런던, 육군 사병 타깃 흥기 테러

- '13.5.22. 오후 영국 런던 남동부 울리치의 왕립 포병 막사 근처에서 두 명의 테러범이 거리를 걷고 있던 푸실리우스 왕립 연대 소속 육군 병사 「리 제임스 리그비」 (25세)를 칼과 클리버*를 이용해 살해
 - * 사각형 모양의 도끼를 닮은 큰 칼로, 주로 뼈·두꺼운 고기를 조각 내는데 사용
 - 테러범들은 「리그비」를 살해 후 시신을 참수하려다 시민들의 제지로 무산되자, “영국군에 의해 매일 무슬림들이 죽어가고 있다.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”라고 외쳤으며
 - 同 사건 이후, 영국에서는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며 한 달 동안 212건의 무슬림 공격사건이 발생
- 국방부는 관련 사건과 관련해 테러범들을 ‘알 무하지룬’(Al-Muhajiroun) 추종자들로 발표하면서 ‘외로운 늑대’型 테러라고 규정
 - * 국방부는 군인들의 공공장소에서의 군복 착용 금지를 지시
- 한편, 「엘리자베스 2세」 英 여왕은 “이슬람교와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며,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 단호하게 맞설 것”이라고 언급
 - * 英 법원은 '14.2.26. 테러범 「아데볼라조」 (28세)에게 종신형을 「아데보알레」 (22세)에게는 징역 45년을 선고

< 알 무하지룬(Al-Muhajiroun) >

- (결성) '86.1.4 시리아인 「오마르 바크리 무함마드」에 의해 영국 런던에서 설립되었으며, 9·11 테러를 찬양하다 '05년 英 정부로부터 강제 해산된 후 지하드 조직으로 활동
- (이념) 쏘 세계적 칼리프制(정통 이슬람 神政국가 체제) 지향 및 사회·정치에서의 이슬람 이념 확산
- (주요테러)
 - '03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카페에서 폭탄테러(사망 3명, 부상 60명)
 - '06년 인도 軍 막사에서 자살 폭탄 테러(사망 1명)
 - '13년 英 런던 울리치 흥기 테러(사망 1명)
 - '19년 英 런던 브릿지 흥기 테러(사망 2명, 부상 3명)